

# 20돌 맞은 국립남도국악원, '문화 쉼터'로 지역민 맞이

공연·세미나 등 사업계획 발표  
9일 국악이 좋다 '다시, 봄' 공연  
'가족사랑 국악공연' 확대  
지역단체 초청 '굿음악 축제' 계획

지난 2004년 개원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국악원)은 '남도 전통문화예술의 산실'을 기치로 내걸고 국악 전문연수 및 공연·체험·연구 등 국악 보급활동과 지역 여가문화에 일조했다. 진도북춤·씻김굿 등 발원지인 진도에 동지를 틀고 지역 예술을 꽃피우는 기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국립남도국악원이 '2024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대표작 공연과 학술 세미나, 토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진도 및 지역예술단체를 초청하는 '굿음악 축제'도 눈에 띈다.

먼저 국악원이 매달 새로운 주제와 구성으로 선보여 온 토요일공연 '국악이 좋다'는 올해 더 풍성한 레퍼토리로 돌아온다. 오는 9일 대극장 진악당에서 국악연주단의 가·무·악 종합공연 '국악의 향연'이 그 첫 막. 율트는 봄을 떠올리게 하는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수제천'을 비롯해 '화관무', 가야금독주 '춘설'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 진도씻김굿보존회, 예술창작집단 소리하나 등 전통예술 단체들을 초청해 공연을 펼친다. 명인·명장 신영희, 이태백을 비롯해 정순인, 이상호 등이 출연하는 '명인전'도 광복절을 기념해 열린다.

이주배경 및 한부모가족에게 전통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사랑 국악공연'도 총 42회로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작품 '심' 출연진들이 안무를 펼치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대폭 늘려(지난해 10회) 전국 가족센터를 찾아간다. 또 '찾아가는 국악원'도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가·무·악 종합공연을 선사한다. 지역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 해남, 완도, 구례군을 찾는 지역협업공연 일환으로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도 예정돼 있다.

2006년 시작해 총 18개국 74단체 1800여 명의 해외동포, 예술단체가 참여한 '해외 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연수'도 계속된다. 3월부터 총 10회 진행하며 올해는 기존에 참가했던 5개 팀을 초청해 서울, 부산, 진도에서 3회 순회공연을 펼친다.

특별문화체험 '보배섬 국악나들이'도 마련된다. 2박 3일 동안 여름과 새해에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갯벌(여름), 해남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다. 진도의 대표적 관광명소 '운림산방'·'세방나조'를 탐방하고 천연 염색, 서화까지 체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매회 60명 모집)

진행) 국악원의 아카이브 소장 자료 중 전남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를 조사해 연구자료로 발간하는 '남도 예술아카이빙 사업'도 계속된다. 지난해 '진도의 향토민요·상여소리' 발간에 이어지는 2차 사업으로, 해남·영암·강진군의 향토음악 자료를 조사해 아카이빙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국악기, 한국무용을 배우는 '국악문화학교'를 비롯해 교직원, 예비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직무연수', '미래교육 국악연수' 등도 예정돼 있다.

명현 원장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악원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다"며 "국악원이 청룡의 해에 걸맞은 '푸른 기상을 담은 국민의 문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영화 보듯 감상하는 전시로

개막 6개월여 앞두고 준비 순조  
4월 베니스서 비디오 에세이 공개  
사업비 151억 투입 '역대 최대'

비디오 에세이, 베니스비엔날레 '병행 전시', 국가별 파빌리온, 파빌리온 광주관...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펼쳐질 제15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 개막)는 '영화보듯 감상하는 전시'를 모토로 진행된다.

비엔날레전시관과 함께 광주 명소인 양림동 일대를 외부 전시장과 연결해 관객을 비롯해 작가, 기획자가 교감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면서 행사 준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전시주제인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시각화한 포스터, 시그니처, 로고 등 EIP(Event Identity Program, 포스터·시그니처·로고 등 주제물)를 최근 공개했다.

먼저 베니스비엔날레 사전 공개 기간인 오는 4월 18일에는 현지에서 홍보 행사를 연다. 일명 광주비엔날레 예고편 격인 비디오 에세이를 선보인다. 광주 정신과 예술을 접목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행사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 지아르디노 비안코 아트스페이스에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 우리가 되는 곳' (4월 18일-11월 24일)도 진행한다. 베니스비엔날레 '병행 전시' 30개 중 하나로 선정된 이번 전시회에선 광주비



2024.9.7-12.1 15th Gwangju Biennale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엔날레 역사와 변화 등을 세계인들에게 알린다. 광주비엔날레 소장품인 백남준의 '고인돌'을 비롯해 크초의 '잊어 버리기 위하여', 그리고 두 작품 의미를 확장하는 3명의 역대

비엔날레 참여 작가의 작품도 전시된다. 5월과 6월에는 참여국과 작가 발표, 디데이(D-day) 이벤트, 홍보관 개관 등 이벤트가 예정돼 있으며 5월에는 입장권 사전예매도 시작한다.

광주시는 또 30주년을 맞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 나선다.

국가별 파빌리온(특별관)도 이번에는 30여개로 확대된다. 또한 파빌리온 광주관도 마련해 광주 미술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며 예술감독은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이 선임됐다. 판소리를 매개로 영화를 보듯 감상하는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축제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7일 광주예술의전당서 무대

"작품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찾아가다 보면 도착지는 언제나 히사이시 조였다."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

현 시대 최고의 영화음악 거장 중 하나로 꼽히는 히사이시 조의 작품들은, 특유의 감성으로 지브리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하늘의 움직임은 성 교향곡 중 '인생의 회전목마'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교향곡' 등은 동화적 환상을 아름답게 해석한 작품들로 유명하다.

아트인뮤직 컴퍼니가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축제'를 오는 17일 오후 2시, 6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총 일곱 곡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교향곡 모음곡', 다섯 편의 '하늘의 움직임 성 교향모음곡'을 비롯해 인기 지브리에니메이션 OST 다수를 감상할 수 있다.

천공의 성 라퐁 OST 'Carrying you'를 바이올린, 첼로 솔로 버전으로 들려준다. 또 명작 이웃집 토토로 중 '나의 이웃 토토로', '바람의 길' 등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마녀 배달부 키키 장면들에 삽입됐던 '바다가 보이는 마을', 바이올린 솔로 버전의 '엄마의 빛자루'도 명곡이다. 바람계곡의 나무시가 중 '바람의



지휘자 임동국.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전설'을 비롯해 기쿠지로의 여름 중 '여름은 피아노 솔로로 관객들을 만난다.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별도의 애니메이션 영상 없이 '풀 편성 오케스트라 연주'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는 계획이다. 지휘에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 음악원 등을 졸업하고 2022년 스위스 국제 음악 콩쿠르(1위), 국제서울음악콩쿠르 대상 등을 수상한 임동국.



애니메이션 '하늘의 움직임은 성' 스틸컷

광주예술의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수많은 명작 OST로 자신만의 따뜻한 감성을 그려 온 '히사이시 조'의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그 팬층이 두터운 편이다"며 "인생의 회전목마 등 신비로운 선율로 가득 찬 악곡들이 빛나는 선율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A석 4만4000원. 인터파크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한 글자 한 글자, 천번 만번 익혀야 해요"

박성안 '한글 서예전'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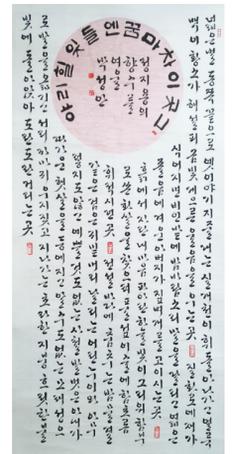
"서예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글 서예는 하루아침에 숙달이 어려울 만큼 일정 기간의 시간이 요구되지요. 무엇보다 전통문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는 9일 오후 3시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에서 전시를 여는 박성안 서예가. 40여 년 서예활동을 해온 그는 전통 예술을 계승한다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무안 일교가 고향인 그는 목포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원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34년 재직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이번 '한글 서예전'에서 그는 '예술의 삶', '고린도전서 사랑질', '담뱃배 삶', '사랑위에 오래가라', '나는 문제 없어'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예술의 삶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서 거기에 접근하려는 정열 때문이다"라는 '예술의 삶' 작품은 일관되게 견지해온 예술에 대한 철학이 배어 있다.

그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자성이 불광불급(不狂不及)은 무슨 일이든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의미라며 "예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을 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의미와 상통된다.

그의 궁서체의 작품은 예스럽고 멋스럽다. 물길의 유장함, 도를 닦듯 작업에 집중해 온 담담함, 그러면서도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풍류의 기질 같은 것이 투영돼 있다. 하나하나의 작품은 오래 동안 글씨에 정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스럽게 멈추고, 감고, 나아가고, 힘을 빼는 과정에서 운필(運筆)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7월 프랑스서 열린다

중부 루아르 지방 고성서 개최  
"세계적 성악가 발굴·활동 지원"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제 성악 콩쿠르를 프랑스에서 개최한다.

콩쿠르 측은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7월 7~13일 프랑스 중부 루아르 지방에 위치한 고성(古城) '샤도 드 라 페르테 앙보'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수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콩쿠르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음악가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것도 한국 클래식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는 2년에 한 번씩 개최

될 예정이며, 세계 클래식 음악 무대의 잠정적인 스타를 발굴하고, 미래의 오페라 스타들에게 자신을 보여 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콩쿠르 참여 대상은 18세에서 32세의 오페라 스타를 꿈꾸는 전 세계 성악도들이다.

제1회 대회 예선은 비디오 심사로 진행되며, 희망자에 한해 한국과 중국에서 조수미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오프라인 예선에 참여할 수 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4명 가운데 9명이 결선에서 경쟁하며, 최종 3명을 선발한다.

1등에게는 5만 유로(약 7500만원), 2등에게는 2만 유로(3000만원), 3등에게는 1만 유로(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부상으로는 '조수미 국제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돼 조수미와 함께 공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회 참가 신청은 5월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서 할 수 있으며, 참가 비용은 50유로(약 7만 3000원)다.

심사위원으로는 조수미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예술 고문인 조나단 프렌드, 라스칼라 극장의 캐스팅 디렉터인 알렉산더 갈로피니, 위너클래식과 에라토의 사장 알렉스 랜서로 등이 참여한다.

조수미는 "그간 맡았던 심사위원 경험, 콩쿠르 참가 등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 세계적인 성악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콩쿠르를 통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니징(지원)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수미

## 한국문예연 '제1회 빛고을미술대전' 작품 공모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제1회 빛고을미술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빛고을미술대전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한국예술종합교육원이 공동주관하며 작품 공모는 오는 19일까지다. (우편 접수는 18일 도착분까지.)

응모부문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민화, 조각, 공예, 사진, 디자인, 서예(한글·한문), 문인화, 서각, 캘리그래피이며 출품자격 제한은 없다. 원서교부처는 한국예술종합교육원 2층이다. 서예, 문인화, 서각, 캘리그래피 작품 접수는 오는 18일-19일까지이며 실제 작품 접수는 한국예술종합교육원 1층 갤러리이며 발표는 22일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홈페이지에 예정.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민화, 조각, 공예, 사진, 디자인 부문 접수는 1차 사진은 18-19일까지, 2차 작품은 25일-26일까지다. 사진 접수는 한국예술중

합교육원 1층 갤러리이며, 2차 작품 접수는 광주에 총으로 하면 된다. 발표는 오는 29일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홈페이지 예정.

시상은 빛고을대상(상금 500만원), 대상(상금 300만원), 최우수상(각 상금 100만원) 등이다. 시상식은 4월 17일 정월일당 245 대강당.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에총에서 1부(4월 17-20일), 2부(4월 24-27일)로 나눠 진행된다.

곽수봉 연합회 이사장은 "이번 빛고을미술대전은 소통의 장, 문화 향유의 장, 창작활성화의 장 등을 모토로 진행된다"며 "특히 ACC 등에서 수상작 전시가 열려 지역 미술의 새로운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품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